



우리은행 이은혜(오른쪽)가 15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KB스타즈와의 홈경기 도중 수비를 피해 골밑슛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연장 접전 끝에 2연승을 탈렸다. 사진제공 | WKBL

김단비·이은혜가 해줬다 우리은행, 1R 1위로 마감

KB스타즈와 연장 접전 끝에 승리



여자프로농구 통합 3연패를 달성한 우리은행은 임영희, 양지희, 박혜진, 이승아 등 베스트5의 전력이 6개 구단 중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푼푼한 4명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우리은행은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 그러나 15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벌어진 KB스타즈와의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선 김단비(7점·3리바운드), 이은혜(3점·6리바운드·2어시스트) 등 식스맨들의 활약이 눈부셨다.

우리은행은 KB스타즈를 상대로 연장 접전을 치른 끝에 63-60으로 승리했다. 2연승한 1위 우리은행은 4승1패로 1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3연패에 빠진 KB스타즈(1승4패)는 최하위에 머물렀다.

포워드 김단비는 1쿼터에만 3점슛 1개를 포함해 7점을 올리며 컨디션이 썩 좋지 않은 양지희(2점·8리바운드)에게 충분히 설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이은혜는 부상에서 회복 중인 이승아를 대신해 포인트가드 역할에 집중했다. 득점에선 기여도가 떨어졌지만, 안정적 리딩으로 우리은행의 공격을 지휘했다.

우리은행은 3점슛을 8개나 쏘아낸 외국인선수 쉼키나 스트리켄(33점·11리바운드)이 분전했지만 믿었던 핵심 멤버들이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해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이때 이은혜가 다시 힘을 냈다. 이은혜는 자유투로 연장 첫 득점에 성공했고, 중요한 순간 공격 리바운드를 2개나 잡아냈다. 연장 종료 3분50초를 남기고는 박혜진(7점)의 3점포까지 어시스트했다.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은 "우리 팀은 주전들의 출전시간이 길다. 13일 신한은행과 저녁 경기 후 이를 만에 낮 경기를 치러 선수들의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다. 김단비, 이은혜 등이 잘해줬고, 스트리켄도 공격에 적극성을 보여줬다. 이게 팀워크가 아닌가 싶다"며 웃었다. **출전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남스켈레톤 김지수, 북아메리카컵 4위 입상

남자스켈레톤대표팀 김지수(21·국군체육부대)가 14일(한국시간)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2015~2016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북아메리카컵 2차 대회에서 함께 1분56초29로 4위에 오르며 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IBSF 국제대회에선 1위부터 6위까지 메달이 주어진다. 김지수는 전날 1차 대회에서도 5위(1분55초64)로 결승선을 통과해 이번 대회에서만 2개의 메달을 따냈다. 여자부 문리영(19·삼육대)은 2차 대회에서 2분00초1로 6위에 올랐다. 스켈레톤대표팀은 캐나다 휘슬러로 이동해 27일과 28일 IBSF 북아메리카컵 3·4차 대회에 출전한다.

골든스테이트, 브루클린 꺾고 개막 11연승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가 15일(한국시간) 오라클 아레나에서 열린 2015~2016시즌 정규리그 브루클린과의 홈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107-99로 이적 개막 11연승을 질주했다. 스티브 커리는 3점슛 5개를 포함해 34점으로 양 팀 통틀어 최다득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앞장섰다.



15일 조선일보 포스코 챔피언십에서 프로 데뷔 첫 승을 올린 최혜정(왼쪽 뒤쪽)이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 KLPGA

시즌 마지막에 웃은 ‘늦깎이 신인’ 최혜정

KLPGA 시즌 최종전서 데뷔 첫 승

합계 17언더파로 박성현 제치고 정상
6년 만에 올라온 정규투어 ‘기쁨 두 배’

“꼭귀왔던 장면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5전6기 끝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무대를 밟은 늦깎이 신인 최혜정(24)이 2015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다. 최혜정은 15일 경기도 용인시 레이크사이드골프장 서코스(파71)에서 열린 조선일보 포스코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 최종 3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합계 17언더파 199타로 박성현(22·14언더파 202타)을 3타

차로 제치고 프로 데뷔 첫 승을 기록했다.

최혜정은 2009년 KLPGA 프로가 됐다. 그러나 정규투어로 올라오기까지는 무려 6년이라는 긴 시간을 2부와 3부투어에서 보내야 했다. 시드전에서만 5번 고배를 마신 뒤 지난해 60위로 겨우 시드전을 통과했다. 한때는 불운에 울기도 했다. 고교 때 다친 발목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부상이 더 커졌고, 2011년 수술대에 올라 6개월 동안 골프채를 잡지 못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몇 년 동안은 KLPGA 중계도 보지 않았다. 솔직히 볼 수가 없었다. 어쩌면 도망쳤던 것 같다”면서 “골프를 그만둘까라고 흔들린 적도 많았지만 ‘이걸 꼭 해내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말했다.

올 해도 늘 불안했다. 시드를 확보하지 못

하면 지옥 같은 시드전을 다시 치러야한다는 부담 때문에 스스로 주눅 들었다. ADT캡스 챔피언십전까지 상금랭킹 59위로 시드 확보가 불안했다. 다행히 ADT캡스챔피언십에서 공동 4위에 오르며 안정권(상금순위 60위 이내)에 들었다. 시드를 확보한 최혜정은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부담 없는 경기를 펼쳤다. 그녀는 “올 시즌 내내 긴장만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 대회 때는 원 없이 즐겨보고 싶었다. 경기에만 몰두하다보니 내가 몇 타를 쳤는지 박성현 선수를 몇 타차로 이겼는지도 모르겠다. 우승했다는 게 실감나지 않는다”며 기뻐했다.

최혜정은 우승으로 2년 시드를 보장 받았고, 우승상금 1억4000만원을 받아 상금랭킹 21위(2억3406만1666원)로 정규투어 첫 시즌

을 마감했다. 한편 2위에 오른 박성현은 상금 8050만원을 추가해 시즌 총상금 7억3669만 82원으로 상금랭킹 2위로 마무리했고, 박지영(19)은 신인상을 확정했다.

용인 |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최혜정은 누구? 조선일보 포스코 챔피언십 우승자 최혜정은 1991년생으로 서울 서문여고를 졸업했다. 김자영, 조윤지 등과 같은 나이로 비슷한 시기(2009년)에 프로가 됐다. 앞서 KLPGA 투어에서 활동하며 2승을 기록한 최혜정(31·불박)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다. KLPGA 투어에선 이름이 같은 선수를 구분하기 위해 이름 뒤에 숫자를 붙인다. 이번에 우승한 최혜정은 ‘최혜정2’로 표기하고 있다.

2015년은 전인지의 해…KLPGA 4관왕 확정

미·일 메이저 석권 등 올 시즌만 8승

2015년 KLPGA투어가 전인지(21·하이트진로·사진)의 4관왕으로 막을 내렸다.

전인지는 15일 경기도 용인시 레이크사이드골프장 서코스(파72)에서 열린 KLPGA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 조선일보 포스코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 최종 3라운드에서 합계 이

본파 216타를 쳐 공동 56위에 그쳤다. 기권했던 4개 대회를 제외하고 올 시즌 최악의 성적이었지만 상금왕(9억1376만833원)과 대상(올해의 선수·435점), 다승(5승), 최저평균타수상(70.56타)까지 4관왕을 확정지었다. 2015년 전인지의 활약은 대단했다. 4월 삼천리투게더오픈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한 뒤 5월 두산메치플레이 챔피언십과 6월 에스오



로피를 들어올렸다.

해외에서도 각광받았다. LPGA투어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과 2개의 일본 메이저 대회(살롱파스컵 월드레이디스챔피언십, 일

본여자오픈)를 석권해 올 시즌에만 8승을 기록했다. 전인지는 “우승했을 때도 기뻐했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기쁘다”면서 “오늘 다시 하나하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고 많은 팬들이 오셔서 응원해주셨다. 나는 정말 북받치는 사람인 것 같다”며 올 시즌을 정리했다.

어게 부상으로 최근 2개 대회 연속 기권했던 전인지는 당분간 부상 치료에 전념한 뒤 12월4일부터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리는 4개 투어 여자골프대회인 ‘더 퀸즈’컵에 출전한다. **주영로 기자**

“아빠, 저 상금왕 했어요” 이보미의 눈물

JLPGA 사상 첫 상금 2억엔 돌파…상금왕 확정
일본 남녀프로골프 통산 한 시즌 최다 상금 도전

“아빠, 저 상금왕 했어요.”

이보미(27·사진)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역사를 새로 썼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이보미는 15일 일본 치바현 그레이트 아일랜드골프장(파72)에서 열린 이토엔 레이디스챔피언십(총상금 1억원) 최종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3개 잡아내며 3언더파 69타를 쳐 합계 14언더파 202타로 정상에 올랐다. 시즌 6번째 우승이자 상금왕을 확정짓는 쾌거 우승이다.

대기록도 달성했다. 우승상금 1800만엔을 추가해 JLPGA투어 여자골프로는 최초로 한 시즌 상금 2억엔을 돌파하는 전인미답의 기록까지 썼다. 일본 남녀 프로골프투어를 통틀어 한 시즌 상금 2억엔 돌파는 역대 4번 밖에 나오지 않았다. <표 참조> 마사시 오자키가 1994년과 1996년 두 차례 2억엔을 돌파했고, 2001년엔 이자와 도시미즈가 2억1793만 4583엔으로 한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을 세웠

일본 남녀프로골프투어 통산 한 시즌 최다 상금 기록		
순위	선수(연도)	상금
1	이자와 도시미즈(2001년)	2억1793만4538엔
2	마사시 오자키(1994년)	2억1546만8000엔
3	마사시 오자키(1996년)	2억946만1674엔
4	이보미(2015년)	2억781만7057엔 (1위와 1011만7526엔 차)
5	마쓰야마 히데키(2013년)	2억107만6781엔

※ 이보미는 2015년 시즌 진행 중

다. 마쓰야마 히데키는 2013년 역대 4번째로 2억엔 고지를 넘었다. 이제 남은 기록은 단 하나. 2001년 이자와 도시미즈가 기록한 한 시즌 최다 상금 돌파다. 2억781만7057엔을 획득한 이보미가 남은 2개 대회에서 1011만 7527엔을 추가하면 남녀 통산 최다 상금 기록을 쓰게 된다. 새 기록 달성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보미는 올해 30개 대회에 출전해 6승과 7번의 준우승을 차지했다. 톱10 밖으로 밀

려난 건 7번뿐이다. 생애 첫 상금왕과 일본 여자골프 최초로 2억엔 돌파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이보미는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스승 조범수 프로의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빠가 계셨더라면 더 좋아하셨을 것 같다. 프로님께서 안아주는 순간 마치 아빠가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우승할 때마다 기뻐하셨던 아빠가 그림자.”

2015년 이보미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 지난해 9월 돌아가신 아버지가 “꼭 상금왕이 돼라”고 남긴 유언을 지키고 싶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심 없이 땀을 흘렸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날 때도 있었지만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 이보미는 “아빠의 유언을 지킬 수 있어 너무 기쁘다. 오늘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정말 열심히 했다. 하늘에 계신 아빠가 도와주신 것 같다”며 그제야 활짝 웃었다. **주영로 기자**



15일 일본 이토엔 레이디스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JLPGA투어 최초로 한 시즌 상금 2억엔을 돌파한 이보미가 우승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 | 이보미

동부, kt 꺾고 단독 5위

정영삼 김백…전자랜드, 6연패 탈출



‘동부상승’을 재전 한 동부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다.

동부는 15일 사직체육관에서 벌어진 ‘2015~2016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3라운드 kt와의 원정경기에서 82-79로 이겼다. 2연승한 동부는 최근

7경기에서 6승1패의 호성적을 거두며 10승11패, 단독 5위로 점프했다. kt(9승11패)는 삼성과 공동 6위로 떨어졌다.

동부는 지난달 신장이 작은 외국인선수를 포워드 웬빌 맥키네스로 교체했고, 이달 초 김주성이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팀의 장점인 높이를 되찾았다. 동부는 kt를 맞아서도 높이에서 압도하며 중위권 싸움에 가세했다.

동부는 1쿼터에 김주성(7점)을 기용하지 않았지만 로드 벤슨(12점·4리바운드)이 9점

을 책임진 덕분에 22-15로 앞섰다. 2쿼터에는 맥키네스(32점·9리바운드)가 나섰다. 김주성과 함께 호흡을 이뤘 동부의 골밑을 지키는 맥키네스는 덩크슛 1개를 포함해 2점슛 6개를 모두 성공시켰다. 동부는 42-31, 11점차로 더 달아났다.

동부는 외국인선수 2명이 동시에 뛰는 3쿼터에도 kt에 전혀 밀리지 않았다. 포워드 마커스 블레이크리(8점·7리바운드)와 센터 코트니 심스(21점·15리바운드)를 보유한 kt는 3쿼터에 강한 대표적인 팀이다. 그

러나 맥키네스~벤슨~김주성~윤호영(6점·8리바운드)이 번갈아 등장하며 리드를 지켰다. 동부는 4쿼터 kt의 맹주격에 역전까지 허용했지만, 79-79 동점에서 경기 종료 5초를 남기고 맥키네스가 1대1 공격에 이은 추가자유투까지 성공한 데 힘입어 승리를 거머쥐었다.

한편 8위 전자랜드(8승14패)는 허리 부상에서 복귀한 슈터 정영삼(3점슛 2개·14점)의 활약으로 LG(5승17패)를 73-72로 따돌리고 6연패에서 탈출했다. **최용석 기자**